

공급망 금융 넘어 문화플랫폼 접수... 우리은행, 영향력 확장

상생형 티켓플랫폼 '2TM' 출범
 중소기업 지원 '원비즈플라자' 작년 가입회사 10.5만곳 넘어 공연 창작자-관객 연결 '2TM' 문화예술 생태계 동반성장 목표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지난 7월 '포용적 성장 플랫폼과 금융복지서비스 간담회'에서 원비즈플라자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고객과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상생 플랫폼'을 확대한다. 지난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전산화를 지원하는 '원비즈플라자'를 확대 구축한 데 이어, 올해는 상생형 티켓플랫폼 '투더문(2TM)'을 출범해 비(非) 금융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넓힌다. 매출 성장과 사회공헌 확대를 동시에 겨냥한 행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원비즈플라자'를 확대 개편한 데 이어 지난 23일 상생형 중개 플랫폼 '2TM'을 오픈했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플랫폼'을 통해 여·수신 업무에 치중했던 기존 매출 구조를 다각화하는 한편, 충성 고객을 확보해 장기 성장 동력도 확보한다는 목표다.

◆ 중기지원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우리은행이 지난 2022년 9월 출시한 '원비즈플라자'는 별도의 비용 없이 ▲ 구매 요청 및 견적·입찰 ▲ 발주 ▲ 검수 등 구매와 관련된 업무를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돕는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이다. 특히 기업 간 소통 창구와 거래 시스템도 제공하며, 표준화된 양식도 제공해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 결제, 예치 및 인출 등을 기업금융 서비스와 결합한 '공급망 금융'은 금융권에서 보편화된 개념이지만, 우리금융은 여기에 '상생금융'을 결합했다. 비용에 부담을 느끼기 쉬운 중소기업의 전산화를 지원해 고객사로 확보하는 한편, 별도의 경영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사의 성장도 지원한다. '원비즈 e-MP'나 '우리CUBE데이터' 등 연계된 서비스 및 상품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가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가교'의 역할도 수행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원비즈플라자'의 확대·개편 발표 당시 중소기업 지원 규모를 적극 늘리고, 지난해 10만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원비즈플라자에 가입한 회원사는 지난해 말 기준 10만5000개를 넘겼으며, 원비즈플라자를 통한 전자계약건수도 빠르게 늘어, 지난해에만 약 5만건의 전자계약이 원비즈플라자에서 체결됐다.

앞서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원비즈플라자의 확대 개편 발표 당시 "대한민국

의 99%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공급망·결제망·금융 지원 등 핵심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렵다"며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구축한 공급망 금융 플랫폼 원비즈 플라자를 통해 기업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상생하며 포용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상생형 티켓플랫폼 '2TM'

우리은행이 최근 출시한 '2TM'은 공연 창작자와 관객을 연결하는 문화 플랫폼이다. 기존 티켓플랫폼에서 제공하던 예매 기능은 물론, 동선별·지역별 공연 탐색 기능을 통해 다양한 공연을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 창작자가 관객과 보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아티스트 인터뷰, 비하인드 스토리 등 콘텐츠 페이지도 제공한다.

2TM은 '문화예술 생태계와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다. 창작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최소화했으며, 비용을 이유로 기존 티켓 플랫폼 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자와 신진 아티스트를 위한 '미니스테이지'도 운영한다. 미니스테이지 내에서는 별도의 홍보 채널과 독립적인

예매 인프라를 제공하고, 포스터 디자인을 비롯해 각종 홍보도 지원한다. 관객이 대표 시 부담하는 수수료도 기존 티켓 플랫폼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낮췄다.

또한 2TM은 기존 우리은행 웹뱅킹·모바일뱅킹과 분리된 별도의 전용 서버를 통해 운영되며, 유량 제어 시스템과 매크로 방지 솔루션을 통해 보다 공정한 예매 환경을 구축했다. 2TM을 통해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관객들에게 보다 공정한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2TM의 유지보수는 우리은행 내의 전문인력들이 직접 수행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규모 공연은 비용 등을 이유로 티켓플랫폼을 통한 판매가 어려운 만큼, 2TM은 '미니스테이지'를 통해 신진 아티스트나 중소기업자에도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공연자들에게는 포스터 디자인 지원이나 홍보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고, 예매자들의 수수료 부담도 낮춰 '상생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5부제 참여 차량 보험료 환급... 손보사 '수익성 부담'

계약 만기시 보험료 2% 환급 방식 손보사, 지난해 7080억 적자 기록 특약부담 연간 2400억 수준 예상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대응을 명분으로 차량 5부제 참여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특약이 다음 달 도입될 예정이어서 손보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손해를 악화로 손보업계가 지난해 7000억원대 보험손익 적자를 낸 상황에서 상생 특약이 수익성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

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가계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차량 5부제 특약을 도입키로 했다.

차량 5부제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할인율은 연간 보험료의 2%다. 보험료를 처음부터 깎아주는 구조가 아니라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5부제 참여 기간을 계산해 환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자동차보험료 70만원을 낸 가입자가 1년 동안 차량 5부제 특약을 유지하면 만기 때 1만4000원을 돌려받는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오는 5월 11일 주 중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하고, 상품 개발과 전산 구축을 거쳐 5

월 18일 주 이후 정식 가입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문제는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수익성이 이미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 할인 부담이 얹힌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708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5%로 전년 대비 3.7%포인트(p) 상승했고,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은 103.7%로 손익분기점인 100%를 넘어섰다.

자동차보험 총손익도 급감했다. 투자손익을 포함한 지난해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951억원으로 전년 대비 83.9% 줄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로 보험료 유입은 줄어든 반면, 경상 환자 치료비와 자동차 부품비, 정비공임 등 손해액 부담은 커진 영향이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 5부제 특약은 손

보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비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입자 1인당 환급액은 크지 않지만, 대상이 약 1700만대로 많은 만큼 실제 참여율에 따라 업계 전체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특약에 따른 손보업계 부담이 연간 약 2400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은행기록 검증도 과제로 꼽힌다. 5부제 참여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다만 5부제 미준수가 확인되면 특약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다음해 특별 할증이 붙을 수도 있다.

보험사들은 특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은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커넥티드카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MG새마을금고재단 지역사회 상생 확산 '온정나눔행사' 추진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MG 온정나눔행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



일 밝혔다. 지역 내 공동체 문화 확산과 더불어 지역사회 상생과 연대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MG 온정나눔행사 지원사업은 새마을금고재단의 대표적인 지역 밀착형 사회 공헌 사업이다. 복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사회복지시설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역별·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지원 사례로는 ▲가정의달·어버이날 맞이 특식 지원 ▲저소득 아동 여름 캠프 지원 ▲문화 소외 지역 공연 지원 ▲중증 장애인들이 지원 등이 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정서적 활력을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새마을금고재단은 지난해에도 온정나눔행사 지원사업을 실시해 전국 78개 사회복지시설에 3억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지난 3월 기준 80개 기관에 총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김인새마을금고재단 이사장은 "온정나눔행사는 지역 복지시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의 필요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선착순 계약

작년 울산 아파트 매매가 2.1% 상승 미분양 60% ↓, 감소율 전국 최대

울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분양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간 2.1% 올랐다.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올해 들어서는 4월 첫째주 기준 누적 집값 상승률 1.68%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해소되는 분위기다. 울산의 미분양 물량은 2025년 2월 3811가구에서 올해 1월 1402가구

로 60% 이상 줄었다. 감소율로 보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거래 가격도 반등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대공원에일린의뜰'의 전용면적 84㎡는 올해 1월 12억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작년 2월 9억9000만원대에서 2억원 이상 올랐다.

현대건설은 울산 남구 야음동 일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을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4층, 총 75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아파트 631가구와 오피스텔 122실로 구성된다.

단지는 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현대건설

낮추기 위해 총 계약금 5% 조건을 적용했다. 1차 계약금은 5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일부 세대에 한해 별도의 계약 조건 혜택이 제공된다.

입지적으로는 인근에 선암호수공

원이 위치해 주거 쾌적성이 높고, 야음초등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학세권 입지를 갖췄다.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될 경우 교통망은 더 개선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